

내외 소식

『당신은 75년 한국 대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 청와대 방문

지난 12월 25일, 약 202명의 선교사들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 대통령을 축복하는 성탄 노래를 부르고 경전과 크리스마스 카드, 기념 메달을 전달했다.



다가오는 한국 대회 1975년 8월 15~17일

1975년은 한국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로서는 실로 역사적인 해라 하겠습니다. 한국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땅으로 헌납하신곳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서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한국 대회가 개최됩니다.

교회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대관장을 비롯, 그분의 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다수, 총관리 역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대회 준비에는 실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새로 조직된 영남 지방부장단

1974년 12월 22일 될 선교부장의 감리하에 개최된 영남 지방 대회에서 지방부장단이 개편되었다. 배 영천 형제는 지방부장으로, 김 백주 형제는 제1 보좌로, 이 병학 형제는 제2 보좌로, 전 영준 형제는 집행 서기로, 손 진기 형제는 서기로 지지, 임명되었다. 장 재환 전지방부장은 새로 임명된 배 영천 지방부장과 보좌들이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부름받았음을 안다고 간증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 서울 선교부장단은 그동안 헌신한 장 지방부장과 지방부장단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한편 장 재환 전 지방부장은 부산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배 영천 지방부장은 영남지방부의 초대 지방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새로 조직된 중부 지방부장단

1975년 제1/4 분기 첫번 지방 대회인 중부 지방 대회가 될 선교부장의 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전 지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중부 지방부 발족 당시부터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헌신해 온 박 주인 지방부장이 해임되고, 동대전 지부의 윤 화중 형제가 지방부장으로 지지, 임명되었다. 이 광우 형제는 제1 보좌로, 이 흥모 형제는 제2 보좌로, 최 성욱 형제는 집행 서기로, 김 현찬 형제는 서기로 각각 지지, 임명되었다. 박 주인 전지방부장은 지방부 평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신학 연구원, 학생 모집

무교동 대한 체육회 건너편 남강 빌딩 301호에 위치한 한국 신학 연구원에서는 1975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소속 와드나 지부의 감독 및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모든 회원과 비회원 이라도 감독이나 지부장의 특별한 추천을 받은 자가 입학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입학원서와 주민등록 초본 1통, 명함판 사진 3매이며 원서 마감은 2월 25일이다.

원서 접수는 소속 와드나 지부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신학 연구원에 직접하여도 된다.

제1와드, 정구장 개장

용두동에 위치한 서울 제1와드는 지난 74년 12월 10일을 기하여 와드 운동장을 이용하여 정구장 두 개를 만들었다.

일반 테니스장과 같은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이 코트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다.”

지난해 12월 24일과 31일 제4와드의 회원들은 광화문 지하도에서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팻말을 들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 오가는 시민들은 발을 멈추고 서서 구호를 외고 가정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듯 했으며, 그 중 몇 사람은 격려도 잊지 않았다.



제2회 서울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

지난 12월 11일 제2회 서울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 1와드에서 8개 와드와 1개 지부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발표되는 합창에 귀를 기울였다. 우수상은 “때가 임박 하니”와 “전능하신 조상의 하느님”을 훌륭히 준비한 제8와드가, 장려상은 제1와드와 제2와드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합창 대회가 제1회 때보다 회원들의 참여도와 실력이 많이 향상 되었다는 평을 남겼다.



제2와드 장로 정원희 송년 모임

지난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제2와드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위한 송년 파티가 있었다.

부부 동반으로 열린 이날 모임은 서울 스테이크 부장이신 이 호남 형제님의 감리로 시작 되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하여 고등 평의원, 각 와드 감독단과 신권 지도자 40여 부부가 음악, 무용, 게임과 식사를 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계동 가정 주일학교 시작

지난 11월, 제1와드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와드 참석이 불편하였던 상계동 성도들을 위하여 상계동 주일학교가 문을 열었다.

서울 제1와드의 가지이기도한 이곳 주일학교는 제1와드의 최 동헌 형제와 김 옹호 형제의 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작 1개월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구도자가 찾아와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곳으로 주목을 끌게 되었다.

양 해윤 형제 양품점 개점

신촌 지부의 양 형제가 지난 12월 17일 청량리 대왕코너 지하층 24호에 양품점을 개점했다.

주로 넥타이와 함께 남녀 용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20% 할인 봉사를 한다고.

